

## 결핵, 그 되살아나는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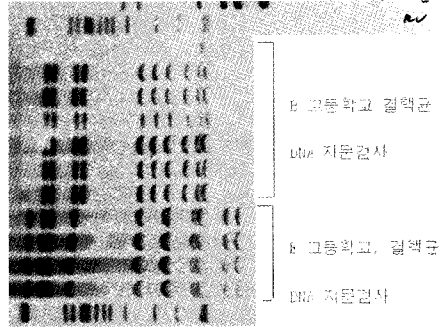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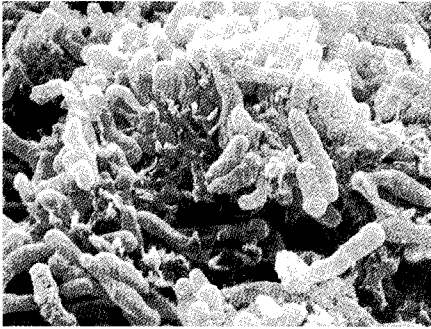
박영환 ■ KBS보도제작국 기자

경기도 분당 신도시 모 고등학교 3학년인 17살 김 모양. 다른 친구들이 한창 대학입시에 매달릴 나이에 폐결핵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지난 해 12월 1일 학교 양호실에서 만난 김 양은 무척 힘들어 했다. “몸이 많이 피곤하고 식은 땀이 나고 가래도 나오고 그래요” 1차 치료에 실패한 김양이 매일 먹어야 하는 폐결핵약은 한줌이 넘는 엄청난 양이었다. 벌써 다섯달 넘게 김 양은 이 약을 복용해 왔고 앞으로도 1~2년 정도 더 먹어야 한다. “양이 너무 많아서 먹을 때 토할 것 같아요. 몰하고는 못 먹고 콜라하고 먹어요. 안 메스껍게 하려구요” 김양의 결핵감염은 2년 전인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달리 정기검진을 안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2년이나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다. 김 양이 감염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사이 친구들까지 감염되고 만 것이 밝혀졌는데 그 학교 양호교사는 “감염된 학생 가운데 2명은 김양과 같은 반이고 옆반 학생도 3명이나 됩

니다. 또 반이 좀 떨어진 학생도 있고 그래서 아마 1,2학년때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감염된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김 양이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미리 발견했다더라면 친구들에게까지 옮기는 집단발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또 다른 고등학교도 울들어 결핵이 집단으로 발병했다. 이 학교의 경우 결핵감염율이 3.7%로 나타나 우리 나라 평균치보다도 4배나 높았다. 이 학교 양호교사는 갑작스런 집단발병에 놀랐다고 했다.

“작년까지는 전교생 가운데 한두명밖에 발견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집단으로 발병했죠. 21명이 발견해 2차 검사를 시켰어요. 2차 검진결과 10명이 활동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판명됐어요.” 사람들 관심밖이던 결핵균이 지난해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히 전염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취재팀은 이에 앞서 지적한 두 고등학교의 결핵집단 발병이 학생들간에 전염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결핵연구원을 찾았다.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박영



전자 현미경으로 본 결핵균 모습으로 막대 같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사진왼쪽) 배양한 결핵균을 DNA 지문법으로 본 모습으로 한 결핵균에 의해 전염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오른쪽)

길 분자생물과장은 결핵이 집단발병한 3군데 고등학생 18명의 결핵균을 배양한 다음 염색한 DNA로 분석하는 이른바 DNA지문법을 사용해서 전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결핵집단 발병이 주로 고3학생들 사이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결핵은 저항력이 약한 사람에게 공기로 전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밀폐된 교실환경과 입시병으로 인해 가증되는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라는 게 고등학교 양호교사들의 진단이다.

특히 겨울같은 때는 하루종일 창문을 닫아놓고 있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학생 수도 많은 편이어서 한 학생이 감기에 걸리면 반 전체가 다 감기를 앓는 경우가 있듯이 밀폐된 교실 환경이 결핵집단발병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감염환경은 IMF체제 이후 노숙자들이 몰려있는 서울역 지하도 같

은 데가 현재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대낮인데도 노숙자 10여 명이 머물러 있는 서울역 지하도를 찾아 갔을때 그중 일부는 아예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자고 있었다. 이들 노숙자 가운데는 남에게 결핵균을 옮길 수 있는 활동성 결핵에 걸린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게 지하상가 상인들의 말이였다.

“저기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는 사람도 결핵환자입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있고 기침을 심하게 해요. 저 사람뿐 아니라 기침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잔뜩 있어요. 이곳 지하도는 평균 투성이예요. 정말 이곳에서 장사하기가 겁나요.”

실제로 대한결핵협회가 검진을 한 결과 이들 노숙자 가운데 무려 10%가 결핵환자로 밝혀졌다. 우리 나라 평균 유병률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환기가 제대로 안되는 지하공간에 머물고 있는 탓이 컸다. 더우기 결핵에 감염된 노숙자의 80%가 한창 움직이는 30~

40대로 밝혀져 감염속도가 더욱 위험한 편이다. 이런 이유로 결핵에 걸린 노숙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강제입원시키는 등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대문시립병원 이준영 진료부장의 말에 의하면 노숙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습관 그리고 섭생에 문제가 있어 주위에 한 사람이 걸렸을 때 파급력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전염성이 강한 결핵같은 질환에 걸린 노숙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해 어느정도 구속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우리 나라 국민가운데 이미 몸속에 결핵균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58%나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태어났던 30대 이상이 보균율이 높은 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잠재적인 결핵환자라는 것이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복십자의원 김성광 원장의 말인데 결핵균이란 것은 몸에 들어오면 평생 보균상태라 몸이 건강할 때는 잠복균이 억제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영양실조에 빠지면 외부적으로 병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 그 균이 분열을 시작, 발병한다고 했다.

결국 IMF체제로 생활의 질이 10년 이상 후퇴한 지금이 바로 결핵이 급속히 퍼질 수 있는 시기인 것이다. 취재팀이 두 번째 만난 40대 결핵환자 구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IMF체

제 이전 건축기술자로 안정된 생활을 하던 구씨는 지난 해 7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돌연 통보받았다.

“감기에 걸린 줄 알아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감기가 아니고 폐에 이상이 있다고 해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면 구씨처럼 갑자기 결핵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한다. 구씨는 왼쪽 폐의 3분의 1정도가 침범되어 공동이 형성되고 상당히 급성으로 진행됐다고 하였다. 구씨는 중학교에 다닐 때 폐결핵에 걸린 작은 아버지를 장기간 간호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때 잠복했던 결핵균이 급발병한 것이다. 실직한 지 불과 15일 만에 결핵환자가 돼버린 구씨는 건설 현장에서 다져진 몸이라 건강 하나는 자신했지만 갑작스런 실직으로 폭음과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이다.

대학생이던 두 아이는 휴학을 했고 구씨 자신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만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결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징후는 보건소등록환자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서울시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가 지난 한 해 사이 500여 명, 10%나 늘었다. 평균 유병률도 지난 65년, 5.6% 최고치를 고비로 해마다 줄다가 지난 95년, 1%를 바닥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결핵연구원 김상재 연구원

장은 “최근에는 IMF영향으로 결핵이 발병해도 병원을 잘 찾지 않고 그래서 병을 앓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기간이 길어지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속에 살아가는 사람 즉, 실직자나 노숙자가 늘고 있어 결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 역시 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다. 대한결핵협회가 운영하는 결핵전문병원인 복십자의원의 경우만 해도 IMF이후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 상황을 보면 본 병원에 등록된 환자가 천여명 되는데 IMF전에는 한달에 열 사람 정도가 치료를 중단했는데 최근에는 한달에 50~60명 정도가 치료를 중단한 상태라고 했다. 그들은 모두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태인데 말이다.

특히 치료만기일을 한두 달 남겨놓고 발길을 끊는 환자가 많아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를 계속하도록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결핵 환자들이 신분이 노출되는 걸 꺼려 치료권유 우편물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전화설득시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려 애로사항이 많은데 무엇보다 결핵환자들의 치료 포기가 늘고 있는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

1차 치료기간에는 월 만원이면 되지 만 2차치료에 들어갈 경우 한달에 10만원이나 된다. 환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렵고 더구나 IMF로 가장이 실직한 경우가 늘면서 약값을 부담하지 못하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라 일가족이 앓는 경우가 많았다.

결핵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환자가 늘어날수록 전염율은 높아지게 된다. 치료를 중단한 결핵환자는 약이 잘 듣지 않는 내성균이 생겨나 악성결핵균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완치율도 떨어진다는게 의료진들의 걱정이다.

만약 1차 치료가 안되면 2차적 약제를 쓰게 되는데 2차 약제는 먹기도 불편하고 약을 먹음으로써 합병증 같은 부작용도 심하다. 따라서 치료기간도 2~3배 더 걸리고 성공률은 1차 치료가 90%인데 반해 40~50%도 안되는 실정이었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 결핵으로 숨진 사람은 4천여 명. 약을 먹은 후 자각증상이 사라지자마자 경솔하게 투약을 임의로 중단한 탓이 제일 크다.

IMF체제 여파로 30년만에 결핵환자가 급증하는 지금, 가장 두려운 세균은 바로 결핵을 감기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풍조다. †

(본 내용은 얼마전 <KBS 리포트>에 보도된 <결핵, 그 되살아나는 공포>를 취재한 담당기자가 취재후기를 본지에 적어 보내준 글입니다 편집자주)